



SCIE 등재를 위한

학회의 노력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편집위원장

이경석

1961년 3월 11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창립

1971년
전문의 시험 자격심사

1972년 10월 31일
대한신경외과학회지 창간

2008-07-04

제 23 권 제 1 호 1994년 1월호

등록번호 라 - 5495

1994년 1월 25일 인쇄

등록일자 1972년 12월 29일

1994년 1월 30일 발행

대한신경외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anuary 1994 Volume 23, Number 1

대한신경외과학회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대한신경외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ANUARY
VOLUME 25, NUMBER 1

ISSN 1225 -



Handwritten signature

JANUARY 2001
VOLUME 30, NUMB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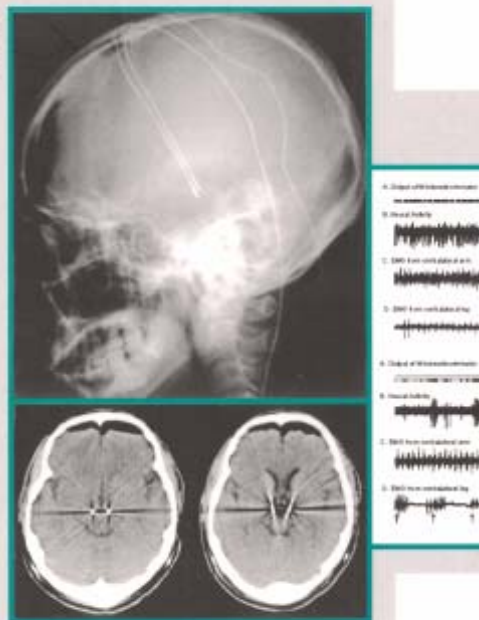
Handwritten signature

대한신경외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anuary 2002

Vol. 31, No. 1



이경호

원고의 성격 및 종류

1. 대한신경외과학회지는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발간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신경외과 관련 신경과학, 신경학, 분자생물학 등을 포함한 신경외과학영역에 관련된 업적을 게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희귀한 증례에 대한 보고나 특수한 기구, 장비에 대한 기술적 고찰 등 신경외과학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들도 게재가 가능하다. 원고의 종류는 원재임상 및 기초연구, 증례보고 및 수술수기, 종설과 논평(letters to editor), 기타 등으로 하며 종설은 편집위원회의 정액원고에 한한다. 또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 기고를 게재할 수 있다. 증례 보고는 간략하여야 하며 문헌에 대한 광범한 조사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재출간(multiple publication)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88 ; 108 : 258-265)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용언어

모든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기술하여야 한다. 한글 학술용어는 대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집제 4집, 2001년 2월을 따른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전달이 확실치 않을 때는 그 용어가 최초로 사용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시 약어를 표기할 다음 소괄호에 약어를 쓰며 그 이후에는 약어만 사용하도록 한다.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외래어표기법(문화부 고시 85-11호)을 따르며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경우 국어의 로마자표기법(2000년 7월 7일 고시)을 따른다. 이러한 자료는 한글학회(www.hangeul.or.kr)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표, 도표, 그림 및 사진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로 한다.

원고의 제출 및 편집

1. 원고 및 사진은 각각 3부씩 제작하여 2부는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저자가 보관한다.
2. 논문 제출시는 이 논문이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논문게재신청 및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양식에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은 뒤 봉투한다. 서명은 모든 저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서식은 대한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모든 원고 및 동의서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110-744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학교실
대한신경외과학회지 편집위원실 김 동 규
TEL : (02) 741 - 9739 FAX : (02) 3876 - 1521 E-mail : jkns@mail.co.kr

3. 저자에 대한 사항-원고에 표기된 저자들은 해당 논문의 원고작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authorshi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90년 채택된 내용을 참조한다(http://www.hms.harvard.edu/integrity/authorship.html).
4. 원저는 한글 약 30,000자, 영문 약 40,000자(학회지 10쪽), 증례 및 수술수기는 한글 10,000자, 영문 20,000자(학회지 5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논평은 한글 300자, 영문 400자 이내로 한다. 제출하는 원고는 A4용지에 정산인쇄(computer printer)로 출력한 것이어야 하며 활자는 11포인트 이상, 줄간격은 2줄(200%)로 하고 좌우 상하 여백을 3cm로 한다.
5.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논문의 질점, 보완 또는 삭제할 요구할 수 있다.
6. 논문의 심사로, 게재료와 별책에 사용되는 비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흔이 깃든 논문을 만들자

스산한 분위기로 시작된 영화는 끝내 많은 관객의 눈
내게 히트는 걸린다. 그리고 양편에 걸목이 만든 그 영화는
도 잘 만들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보훈을 남겼고 당시
남인들에게 문화적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계기

유복은 열정과 소질은 있지만 선생님께서서 파문당한
땀문이다. 선생님의 힘도 견드리려고, 시골과부와 야만 도
령도 차려 보았지만 여복이 없었던지 결국은 반 쌍을의 피
얇은 두 명의 아이들과 어려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처지가
배운 것이 그것이라 유복은 두 아이들을 고수와 소꿉친으로
잔칫집, 요정, 시골마당을 해방해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
열등감과 경제적 어려움에 찌는 삶 중에서도 중도에 파문
우지 못한 순창가를 옛날에는 자기보다 못했지만 나중에
된 동료로부터 아련함을 대주면서 배우는 피들이 소꿉친으
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 결국 권디다
못한 동호는 자기의 삶을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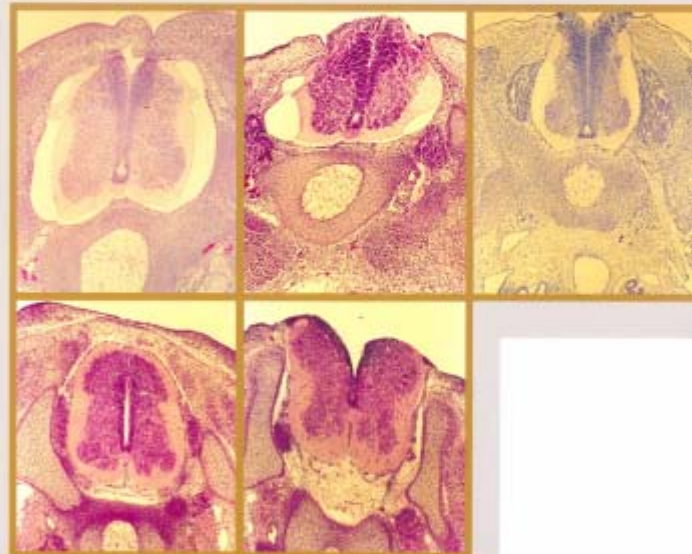


대한신경외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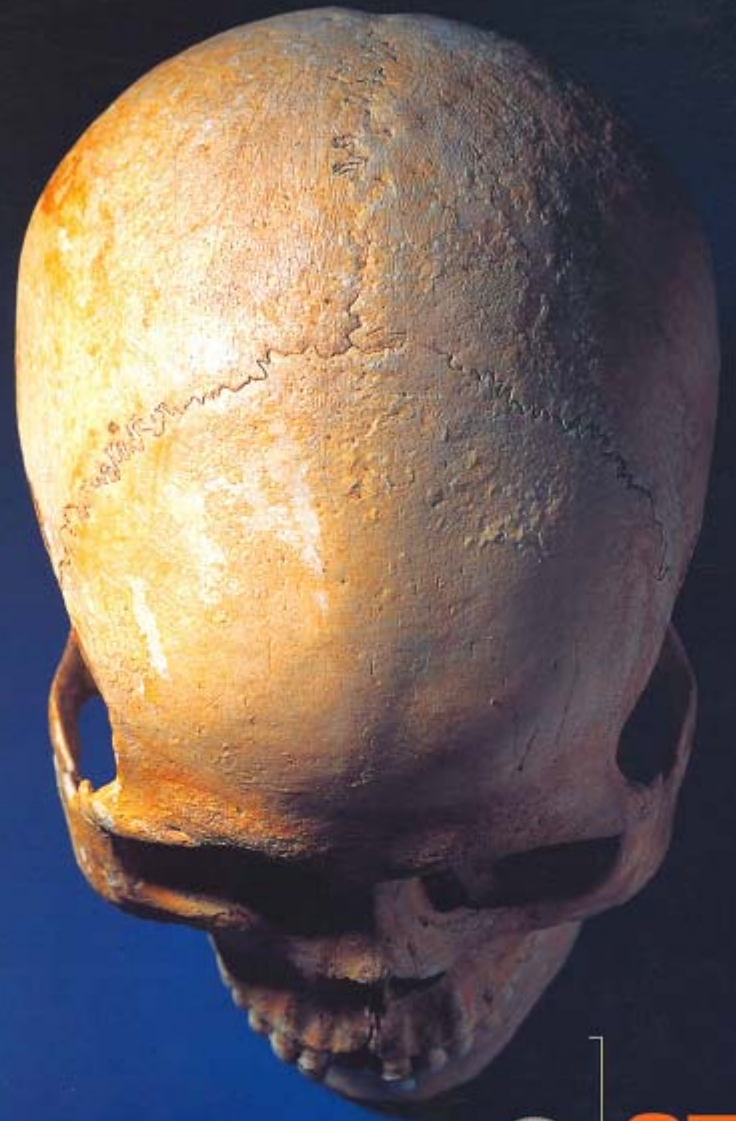
July 2002

Vol. 32, No. 1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ULY 2003

VOLUME 34 / NUMBER 1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07

Print ISSN 1225-8245
On-line ISSN 1598-7876
www.neurosurgery.or.kr

HOME > 학회·학술

프린트 이메일

신경외과 학술지 내용·편집 쇄신

인물사진·산수화 등 표지 게재...영문원고 적극 권장



신경외과학회(이사장 변박장, 회장 김형동)가 최근 회원들의 연구활동 고취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회지 내용을 새롭게 꾸미고 있어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경외과학회지는 지난 2002년 1월호부터 주요논문의 사진을 과감히 게재하는 새로운 편집을 채택하여 기존 전형화된 학술지의 모습을 탈피한 상태이다.

신경외과학회는 또한 학회지에 창설자인 심보성 교수의 사진(2002년 9월호)과 역대 편집책임자의 사진(2002년 10월호) 및 청전 이상범 화백의 산수화(2003년 1월호) 등을 연이어 표지에 등장시키며 일반 교양지 못지 않은 편집의 묘를 살리고 있다.

학회지의 이같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규 편집장(서울의대 신경외과 교수)은 "흔히 낳은 논문을 만들자"는 운명철학을 피력하며 'editor's letter'와 'letters to editor' 공간을 신설해 회원과 편집자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 의약품·식품안전 싱크탱크 역할
- 함량미달 중환자실, 일반병실로 산정
- 생동성 조작藥 약제비 환수추진
- 美 토마토 살모넬라균 감염자 급증
- 글로벌 전략 가속화...해외M&A 붐몰

알립니다

- 본사 취재기자 모집
- 보건의료계 주요 포토뉴스 모음
- 사진으로 보는 일간보사·의학신문 창간기..

리바로정 2mg

의료·제약 영문뉴스 English News

인터뷰
· 을지병원 김응진 박사
· 인터뷰 | 이민혁 유방암학회...
· 의약품·식품안전 싱크탱크...



COVER STORY

The surgical specimen of intradiploic epidermoid cyst is well preserved and exactly matched to the lesion shown in magnetic resonance image. The etiology of occurrence of epidermoid cyst in the diploic space of skull is still controversial however, developmental origin is the most powerful hypo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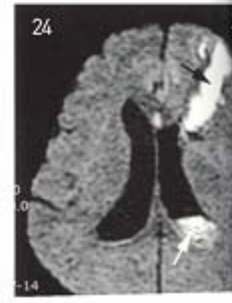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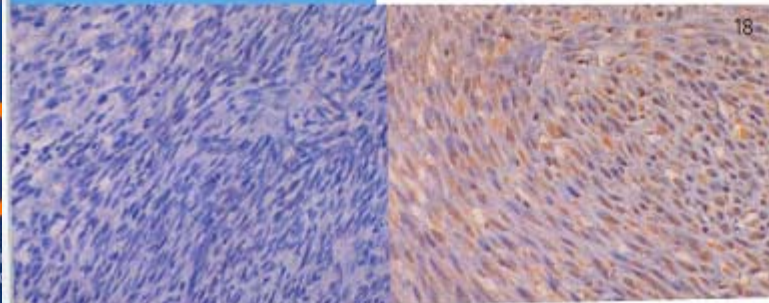
Contents

Clinical Articles

- 1 **Correlation between Cerebral Vasospasm after Subarachnoid Hemorrhage and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Levels in Serum and Cerebrospinal Fluid**
 JH Cheong, JM Kim, KH Bak, CH Kim
- 12 **Differential Expression of the Tight Junction Protein, Occludin, in Brain Tumors**
 CH Kim, JH Cheong, KH Bak, JM Kim, Y Ko, SJ Oh
- 16 **Relation of Multiple Neurogenic Tumors in the Spinal Canal to Neurofibromatosis**
 HJ Seol, CK Chung, HJ Kim, YK Lee, SH Park
- 23 **Diffusion-weighted Imaging and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Maps for the Evaluation of Pyogenic Ventriculitis**
 HS Kim, JT Hong, SW Lee, BC Son, JH Sung, MC Kim
- 28 **Intracranial Aneurysms in the 3rd and 4th Decades in Comparison with Those in the 8th and 9th Decades**
 CH Kim, SH Park, JC Park, JH Hwang, JK Sung, IS Hamm
- 35 **Outcome of Atypical Meningioma**
 JS Bae, JB Park, JH Kim, CJ Kim, JK Lee

Laboratory Investigations

- 41 **Effect on Varying the Impact Velocity in the Controlled Cortical Impact Injury Model : Injury Severity and Impact Velocity**
 YC Ji, BK Min, SW Park, SN Hwang, HJ Hong, JS Suk



July 2005

VOLUME 38 / NUMBER 1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Print
 On-line
 jkns.s

日日新, 又日新

성정도 많이 죽었고 벌리는 못갈 배양 몸도 진과 같지 못하다. 숲속에서 나온 불쾌한 일곱대신 율목 대신 주름이 클로즈업 되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눈만은 더욱 영롱하다. 이쪽과 가마 속 불길로 무엇인가 들어가고 무서운 기세의 불길은 그찰음을 모르는데 금강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착마이 때이를 장식한다. 시종 수려한 금수강산을 세련된 행궁로 끌어내는 감도의 숨겨져 일관된 한국영화 취향의 마지막 장면이다.

오원(五圓)은 끊임없이 고뇌한다. 천한 몸이지만 어려서부터 신기(神氣)를 타고났다는 재주는 조금은 작만 해도 겉잡을 범한대 스스로 신기를 다스리지 못함을 장기로 표현한다. 미친 듯이 숨을 췌 마시는가 하면 남 지구신도 못하면서 동거하는 잡년과 어린 고아는 마냥 무드러낸다. 유랑 끝에 집에 돌아오면서 미안한 마음에 시장에서 사 가지고 간 김 한 켠 값의 이승 화초농은 아니나 다행히 절구공이에 사정없이 췌겨쳐 나가고 이해하지 못할 기행과 무례함은 동료 화생들 사이에서도 왕마를 당하고 만다. 하지만 원구의쟁이 천기의 속착마에 때와 한 쪽 그리우고 기방에서, 들뜬에서 나누는 사랑은 순하고 사랑인 양 멧있게 묘사되어 순수함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살짝 보여주는 듯하다.

쪽빛은 쪽물보다 훨씬 아름답지만 쪽물 잃이는 쪽빛을 내지 못한다. 너도 고은 쪽빛을 만들어 내는 쪽물 같은 사람이 되거라 라는 해산선생의 말에 오원이 평소와는 다르게 고분고분한 것은 마음속에 진경으로 와 닿는 빠진느낌은 아니기 때문이라. 한 편 미천능 같은 사람에게 더욱 미쳐보라는 스승의 말에는 오원이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 말은 평범하다면 평범한 '日日新, 又日新(일일신, 우일신)'이었다. 아니 오원은 반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너무나도 고뇌하는 정곡을 찔렀기에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의 표현이 그렇게 된 것 뿐이다. '일일신(日日新)' 하기 위하여 미쳐 버릴 듯한 천재의 마음에는 노력하지 않는 평민(凡人)들의 행동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뒤쳐져 버린다는 생각은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있었다. 다만 세계사에서도 전례가 없던 500년 이상 지속된 화려했던 왕조가 찍은 고국나무 넘어가듯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었음 뿐이다.

쪽빛 후학들의 쪽물이 되기 위한 '日日新, 又日新(일일신, 우일신)'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교훈이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새해아침이다.

乙酉 元旦 癸正

추석
취향

Upcoming Meetings

Domestic Meetings

The Korean Society of Cerebrovascular Neurosurgery
- September 9(Fri)-10(Sat)
- Asan Medical Center, Seoul

Honam Neurosurgical Society
- September 14(Wed)
-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Daegu-Gyeongbuk Neurosurgical Society
- September 15(Thu)
- Dongguk University, Daegu

Busan-Gyeongnam Neurosurgical Society
- September 19(Mon)
- DongKang Medical Center, Ulsan

Daejeon-Chungcheong Neurosurgical Society
- September 23(Fri)
-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The Korean Society of Spinal Neurosurgery
- September 30(Fri)-October 1(Sat)
- To be announced

45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October 12(Wed)-15(Sat)
- Intercontinental Hotel, Seoul

Postgraduate course of the Korean Stereotactic and Functional Neurosurgical Society
- November 5(Sat)
- Asan Medical Center, Seoul

Postgraduate course of the Korean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
- November 12(Sat)
- Yonsei University, Seoul

Daegu-Gyeongbuk Neurosurgical Society
- November 17(Thu)
- Yeungnam University, Daegu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Intravascular Neurosurgery
- November 20(Sun)
-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n Brain Tumor Society
- November 26(Sat)
- Catholic Research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 Seoul

Daegu-Gyeongbuk Neurosurgical Society
- December 8(Thu)
- To be announced

Busan-Gyeongnam Neurosurgical Society
- December 9(Fri)
-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Busan

Daejeon-Chungcheong Neurosurgical Society
- December 16(Fri)
-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International Meetings

Hydrocephalus 2005 International Consensus Meeting
- August 15(Mon)-18(Thu)
- Queenstown, New Zealand
- <http://www.madeline.org>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chemical Markers for Brain Damage
- September 8(Thu)-10(Sat)
- Boothbay Harbor, USA
- <http://www.bmbd.lu.se>

7th Annual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Symposium
- September 9(Fri)-10(Sat)
- Toronto, Canada
- <http://www.ome.utoronto.ca>

Endoscopic Pituitary Surgery: 3rd Hands-On Workshop
- September 9(Fri)-10(Sat)
- Vienna, Austria
- <http://www.ghh-wien.ac.at/neurochirurgie/kurse.htm>

33rd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
- September 11(Sun)-15(Thu)
- Vancouver, Canada
- www.ispn.org

7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tereotactic Radiosurgery Society
- September 11(Sun)-15(Thu)
- Brussels, Belgium
- www.isrs2005.com

4th Annual Emerging Technologies in Spine Surgery
- September 15(Thu)-17(Sat)
- Washington DC, USA
- registration@federeerforises.com

Inside Story

Interview

Hippocrates 전통무용단 유채진 9인조

Culture Story

- 2005 아시안문화 (아시아) 예술의 마당
- 무르호 마추어, 장갑주, 변산 불교미술 오케스트라
- 남한 일대의 음악 '가을 Gaer'
- 노년층의 인지 교육
- 2008 아시아 문화의 날 제2차 아시아 문화의 날
- 뮤지컬 돈키호테 (Man of La Mancha)
- 호암미술관 소장품 테마전 9 연못
- 레오나르도 다빈치



COVER STORY | 지명

4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뮤지컬 돈키호테 (Man of La Mancha)

뮤지컬 돈키호테는 마릴 데이 셔크번테스의 원작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대일 화려함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돈키호테는 이미 벌레, 벌레, 연극, 오페라 등 여러 장르로 재구성 되어왔지만 대일 화려함은 기존 작품들과는 다른 돈키호테를 만들기를 원했다. 바로 작가인 셔크번테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 불구어어, 포로생활도 겪었고, 교토로부터 파산당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한, 한여디로 불행한 인생을 산 셔크번테스, 셔크번테스를 연구하던 대일 화려함은 셔크번테스가 곧 돈키호테였을 것이라는 장미 초점을 맞췄다. 대일 화려함은 이렇게 말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뮤지컬 돈키호테는 그 자신이 돈키호테였던 이걸 대 셔크번테스의 불굴의 영혼에 존경을 표하는 나의 방식이었다." 새로운 노점으로 갖게 다가올 뮤지컬 돈키호테, 새로운 시각으로의 해석을 한번 경험해보자.



• 일시: 7월 30일~8월 28일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문의: 02501-7888



진한 발명 예술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

COEX 전시관 2008.7.8~8.7, 경기아트센터 2008.8.14~16.4
전시: 10월~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최: 한국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문의: 02-540-1400-7, 02-540-1400-8

인간발명예술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르네상스시대 최고의 천재 예술가이자 발명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발명가로서 그의 천재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비밀 코덱스(발명품들이 스케치그림을 모아 놓은 책)를 연구하여 그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레오나르도는 육지, 하늘 그리고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의 제작 방법을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수수께끼 뒤에 감추어 두었다. 특히 어떤 전시에서는 대업을 감이서 움직이는 인공 최초의 자동차, 박쥐를 흉내 낸 비행기, 헬리콥터 등이 볼 만하다.

• 일시: 7월 8일~8월 7일
• 장소: COEX 연도강홀
• 문의: 02561-3803



종요와 다산 국학왕생의 소망을 담은 연꽃을 만나다

호암미술관 소장품 테마전 9 연꽃

한국미술관에 많이 나타나는 연꽃. 연꽃은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국학정도를 상징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여유와 절망에 대한 염원을 담아 왔다. 불교미술과 도자기, 시화, 그리고 각종 생활 용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연꽃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총 74점이 출품되어 국보 228호(금동 관음보살 입상), 국보 234호(강지 은니 보살연화상)를 비롯, 보물 2230호(백자상감 연꽃보살 명) 등을 만날 수 있다. 상아서는 현재의 많은 복을 누리고 죽은 후에는 정토에서의 황명을 기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소망과 함께, 그들이 이룩했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시: 10월 16일까지 • 장소: 호암미술관 기획전사실 • 문의: 02204-6552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Fusion Rate and Clinical Outcome after Mini-open ALIF using Paired Stand-alone Rectangular Cages

편집자 귀하 : 최재형 등이 발표한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Fusion Rate and Clinical Outcome after Mini-open ALIF using Paired Stand-alone Rectangular Cages (대한신경외과학회지36 : 28-33, 2004)"를 읽고 저자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자들은 퇴행성 요추 질환에 mini-open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ALIF)를 시행하여 매우 좋은 임상 결과와 골유합 성공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논문을 고찰하여 볼 때 임상적 결과와 골유합 성공률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저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우선 첫째로 임상적인 결과입니다. 최근 Button¹⁾은 46명에게 stand-alone BAK cages를 이용한 ALIF를 시행한 후 추적 관찰한 결과 10명에서 재수술이 필요했으며 70%의 환자들이 Prolo rating system으로 판단할 때 fair 또는 poor outcome을, 58%의 환자들이 Oswestry outcome scale 상 "severe disability"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퇴행성 요추 질환에 stand-alone BAK 시술을 재고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골유합 성공률입니다. 저자들은 88.3%의 골유합 성공률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다른 보고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물론 저자들에 따라 추적한 골유합 성공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데 가장 큰 이유가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추적한 골유합 성공 여부를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Santos 등²⁾은 ALIF후 단순 침입과 flexion-extension radiograph 만으로 판단할 때 골유합이 된 것으로 보였던 많은 경우에서 thin-section helical computed tomography(CT)scan을 촬영한 결과 골유합으로 판단 되었으며 thin-section helical CT 만이 bridging bone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Pellise 등³⁾도 stand-alone carbon-fiber cages를 이용한 laparoscopic L5-S1 ALIF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CT로 판단 하였을 때 골유합 성공률은 매우 낮았다(10%)고 보고 하였습니다. 골유합 성공률의 차이는 cage의 재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Sasso 등⁴⁾은 cylindrical threaded titanium cage를 사용한 경우 골유합 성공률이 97%, femoral ring allograft를 사용한

경우에는 40%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골유합의 판단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제시한 중재 시간에서도 명확하게 추체간 b2 관찰되지 않아 골유합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
또 저자들은 Disc space re-narrowing(Subsidence)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다른 많은 논문에서도 추체
은 경우에서 subsidence가 관찰되었다고 보고 하
Subsidence는 골유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체의 bone이 remodeling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하거나
하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생체역학적 연구에서도 ALIF와 po
interbody fixation(PLIF) 모두 충분한 안정성을
므로 임상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하며 PLIF 가 AI
역학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⁵⁾.

세 번째로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 발생입니다. M
은 conventional ALIF에 비해 수술 중 출혈 양,
잠재 길이 등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⁶⁾. 그러
수술의사들에게 후방 경우 수술보다는 생소하며
관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 주요
손상, 역행성 사절 등이 보고 되어 있습니다⁷⁾.

위의 여러 관찰에서 볼 때 이 논문은 다른 여러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의 답변을 구합니다.

한양대학교 구리

References

1. Button G, Gupta M, Barrett C, Carnack P, Benam D
follow-up of stand-alone BAK cages implanted by a single
155-160, 2005
2. Gaughrich JA, McDermott JC : Unusual injury during
anterior lumbar fusion. *Spine* 25 : 1586-1588, 2000
3. O'Brien J P : Point of View : Unusual Injury after anterior
fusion: A case report. *Spine* 21 : 2382, 1996
4. Pellise F, Puig O, Rivas A, Bago J, Villanueva C : Low fu
laparoscopic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min
fiber cages. *Spine* 27 : 1665-1669, 2002
5. Santos ER, Goss DG, Mottram RK, Fraser RD : Radi
interbody fusion using carbon fiber cages. *Spine* 28 : 997-
6. Sarraf V, Lerch C, Walochnik N, Bach CM, Kitano
Comparison of conventional versus minimally invas
approach for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Eur Spi*
2004
7. Sasso RC, Kitchel SH, Dawson EG : A prospective, ran
dized trial o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a
threaded fusion device. *Spine* 29 : 115-122, 2004

Clinical Articles

Feasibility & Limitations of Endovascular Coil Embolization of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s
SK Hwang, R Benitez, E Veznedaroglu, RH Rosenwasser

Cranioplasty with the Porous Polyethylene Implant (Medpor) for Large Cranial Defect
KS Hong, SH Kang, JB Lee, YG Chung, HK Lee, HS Chung

Surgical Results of an Bloc Open-door Laminoplasty
SW Kim, SM Lee, H Shin, HS Kim

Surgical Treatment of Lumbar Spinal Stenosis in Geriatric Population : Is it Risky?
DW Kim, SB Kim, YS Kim, Y Ko, SH Oh, SJ Oh

Simultaneous Paraspinal and Midline Approach for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Technique to Prevent Lamina Fracture)
SW Kim, SM Lee, H Shin

Retrospective Analysis of Re-operated Patients after Chronic Subdural Hematoma Surgery
CA Jeong, TW Kim, KH Park, MP Chi, JO Kim, JC Kim

Laboratory Investigations

The Cell Survival and Differentiation after Transplantation, Which Harvest from Adult Rat Brain by High-speed Centrifugation Method
JT Kim, DS Yoo, JH Woo, PW Huh, KS Cho, DS Kim

Cytotoxicities of Tumor-specific T Lymphocytes Primed by Glioma Apoptotic Body - or Glioma Cell Lysate-pulsed Dendritic Cells
JT Kim, DS Chung, SW Kwak, YM Han, YS Park, MC Kim

Case Reports

Endovascular Treatment by using Double Stent Method for Ruptured Vertebral Artery Dissecting Aneurysms
SH Kim, CH Choi, TH Lee, SW Lee

Brown Sequard Syndrome Resulting from Cervical Disc Herniation Treated by Anterior Foraminotomy
YS Kim, JK Lee, SP Joo, SH Kim

Pseudoaneurysm Formed by Slippage of Aneurysmal Clip
HC Ryu, SW Yoon, JS Lim

Multi-access for the Diagnosis of Missed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DY Lee, HS Kim, SH Lee

Cavernous Angioma of the Oculomotor Nerve
DM Park, DH Kim

Strategy for the Patient with Tuberculoma Sellae Meningioma Combining Bilateral Internal Artery Aneurysm
KY Cha, SK Park, YS Hwang, TH Kim

Traumatic Carotid-cavernous Fistula Bringing about Intracerebral Hemorrhage
CJ Lee, SW Choi, SH Kim, JY Youm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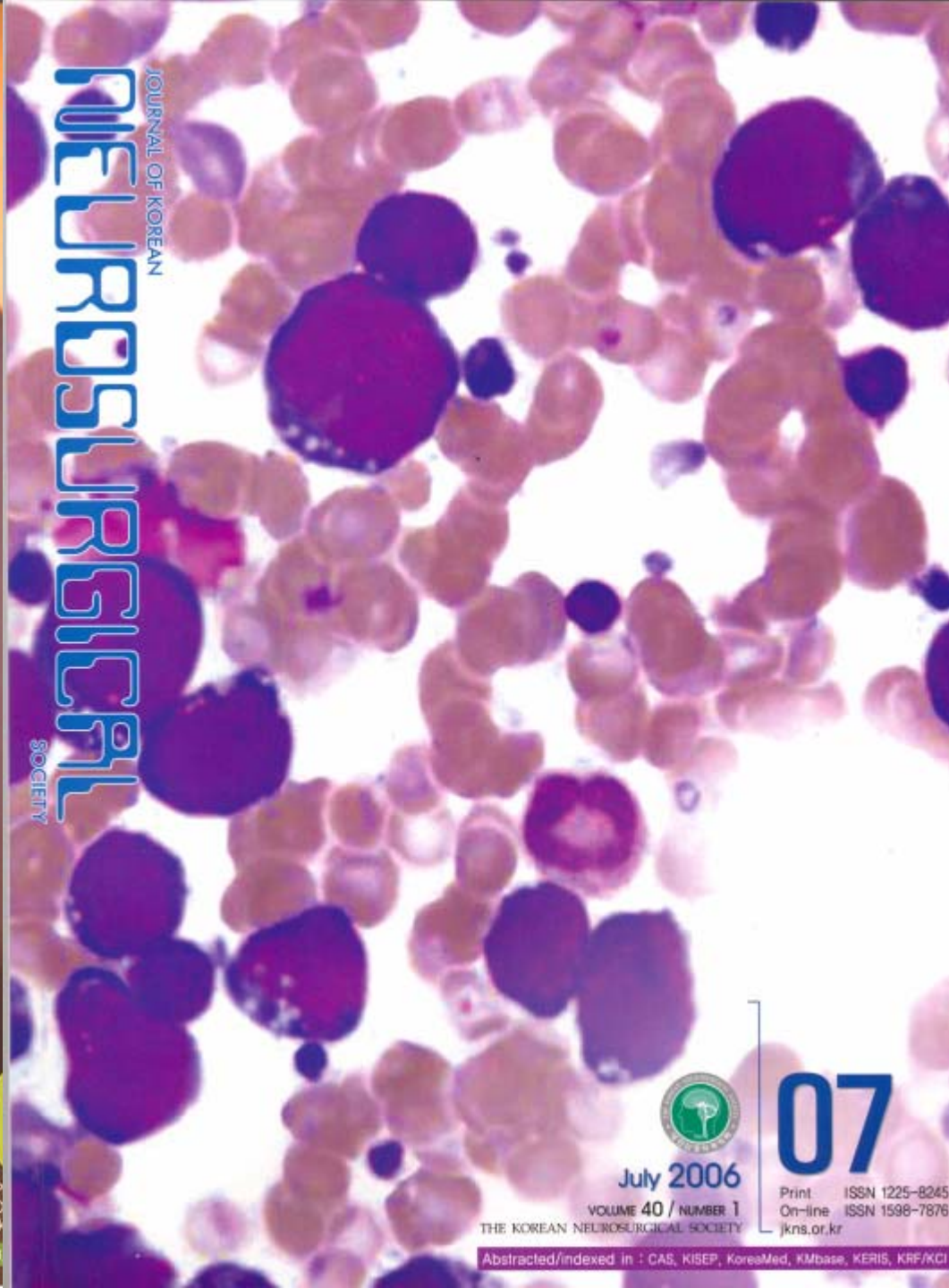


January 2006

VOLUME 39 / NUMBER 1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bstracted/indexed in : CAS, KISEP, KoreaMed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uly 2006

VOLUME 40 / NUMBER 1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bstracted/indexed in : CAS, KISEP, KoreaMed, JMBASE, KERIS, KRF/KCI

07

Print ISSN 1225-8245
On-line ISSN 1598-7876
jkns.or.kr

학술지 편집위원장 교체



- 김동규 2002. 12 ~ 2006. 11.
 - 5년 간(1년 잔여임기 사퇴)
 - 역대 편집위원장 중 최장
- 이경석 2006. 12 ~ 2009. 11.
 - 편집위원으로 활동
 - 교과서 편찬위원장(잔여 임기 1년 사퇴)

학술지의 평가



- 학술진흥재단: 2006년 12월
- PubMed 등재 준비
- CAS: 2006년 1월에 등재(일시 누락)
2008년 2월 15일 등재 확인.

일은 전임자가, 열매는 후임자가!



- EMBASE: 2007년 4월
- SCIE: 2008년 3월 14일(2007. 01.)
- PMC: 2008년 3월 7일



GO Advanced Search

Thomson Scientific : Master Journal List : Journal Search

JOURNAL SEARCH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JOURNAL LIST Total journals: 6934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J" Journals 611-620 (of 1257) << < > >>

FORMAT FOR PRINT A-Z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Bimonthly
ISSN: 1011-8934
KOREAN ACAD MEDICAL SCIENCES, 302 75 DONG DU ICHON, DONG YONGSAN KU,
SEOUL, SOUTH KOREA, 140 031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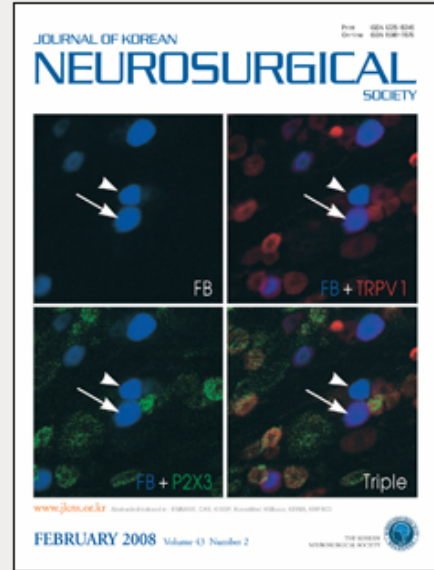
Monthly
ISSN: 1225-8245
KOREAN NEUROSURGICAL SOC, 407 DONG-A VILLATE 2ND TOWN, 1678-2 SEOCHO-
DONG, SEOCHO-GU, SEOUL, SOUTH KOREA, 137-070

JOURNAL OF LABELLED COMPOUNDS & RADIOPHARMACEUTICALS

Monthly
ISSN: 0362-4803
JOHN WILEY & SONS LTD, THE ATRIUM, SOUTHERN GATE, CHICHESTER, ENGLAND, W

- Academic
- Corporate
- Engineering & Technology
- Government
- Intellectual Property
- Non-profit
- Pharma & Biotechnology
- Product and Customer Support
- Training
- Products & Solutions A-Z
- Product Login
- Free Resources
- Conferences & Events

ISSN 1598-7876



February 2008
Volume 43, Number 2



Quick Search + more search
Title Search
[input] search

Cover Story

Immunofluorescent photomicrographs showing expression of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subfamily type 1 (TRPV1) and P2X3 in the L5 dorsal root ganglion from an animal injected with fast blue (FB) into gastrocnemius muscle. The arrowheads indicate the FB-positive cells do not expressing TRPV1. The arrows indicate the FB-positive cells also expressing TRPV1, but not P2X3.

+ more articles

In the Next Issues

Vol.43 No.3

Clinical Articles
Analysis of Clip-Induced Ischemic Complication of Anterior Choroidal Artery Aneurysms
MS Cho, MS Kim, CH Chang, SW Kim, SH Kim, BY Choi

Laboratory Investigation
The Relation Between Sox9, TGF-β1, and Proteoglycan in Human Intervertebral Disc Cells
YJ Lee, MH Kong, KY Song, KH Lee, SH Heo

Case Reports
An Unusual Case of a Thrombosed Giant Distal PICA Aneurysm Simulating a Large Cavernous Angioma
DH Lim, S Jung, TY Jung, TS Kim

1 / 2008 Volume 43, Number 1
The past and the present > Photographs taken at Korean Neurosurgical Founding Ceremony in 19...

12 / 2007 Volume 42, Number 6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location and course of facial nerve on the surface of vestibular ...

11 / 2007 Volume 42, Number 5
Fluorescent photomicrographs showing apoptosis induced by combined treatment of As2O3 and berber...

10 / 2007 Volume 42, Number 4
A diagram showing the distribution of location of ruptured aneurysm according to sex in Youngdo...

9 / 2007 Volume 42, Number 3
A demonstrative case of posterior atlantoaxial 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in a 30-year-old w...

8 / 2007 Volume 42, Number 2
Pre- and post-operative angiograms showing the difference of ability to discern aneurysm neck r...

NEWLY IND...
IN EMBA...
SINCE APRIL...
4th International Course on

학회의 역할



- 일은 사람이 하는 것!
- 뜻만으론 안 되고 여건도 중요!
- 충분한 기간 동안 쭈~욱

편집위원장의 역할



- 투고규정 정비
- 편집위원, 심사위원 연수교육
- 우수논문상
- 목표 설정과 변화
- 기록 남기기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2006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2005

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4

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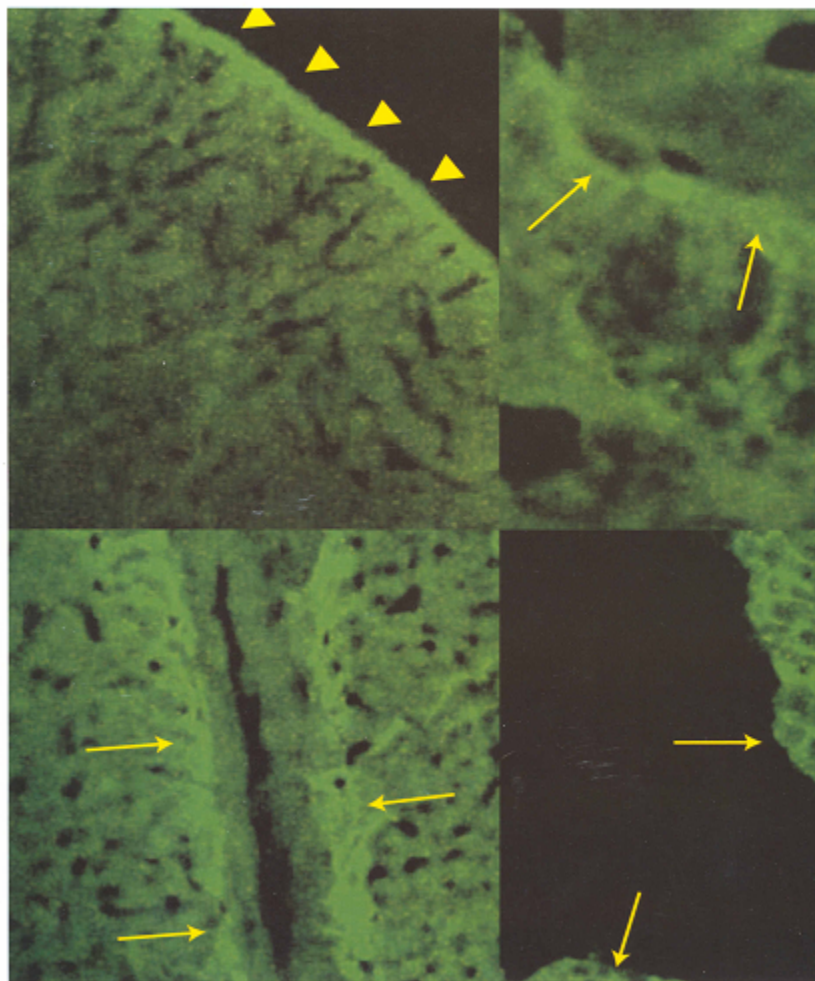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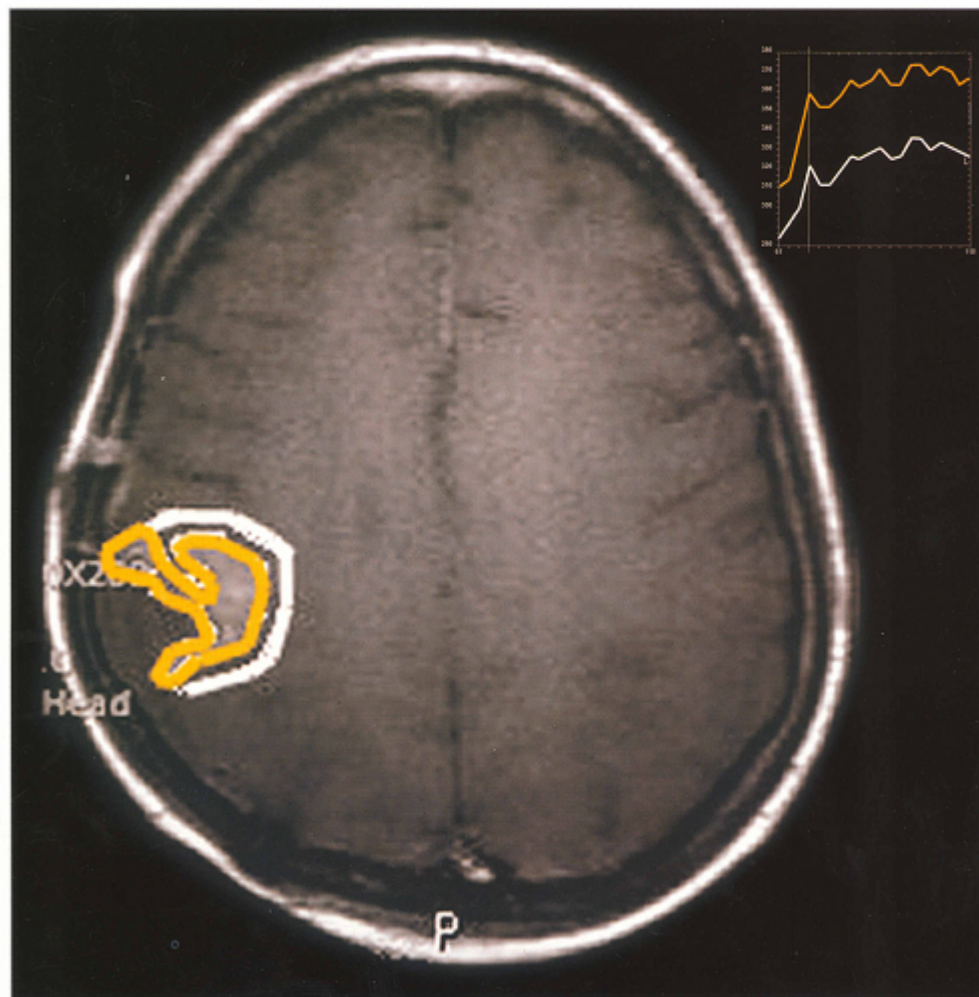
1월 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www.jkns.or.kr Abstracted/Indexed in : CAS, KISEP, KoreaMed, KMBASE, KERIS, KRF/KCI



www.jkns.or.kr Abstracted/Indexed in : EMBASE, CAS, KISEP, KoreaMed, KMBASE, KERIS, KRF/KCI



논문 투고 감소

영어로 쓰기 힘들어서

9개 분과학회 학술지

SCI(E) 등재 학술지 요구

표지 논문 찾기도 어려움

정시출간 유지 불가!!!

다음 호 목차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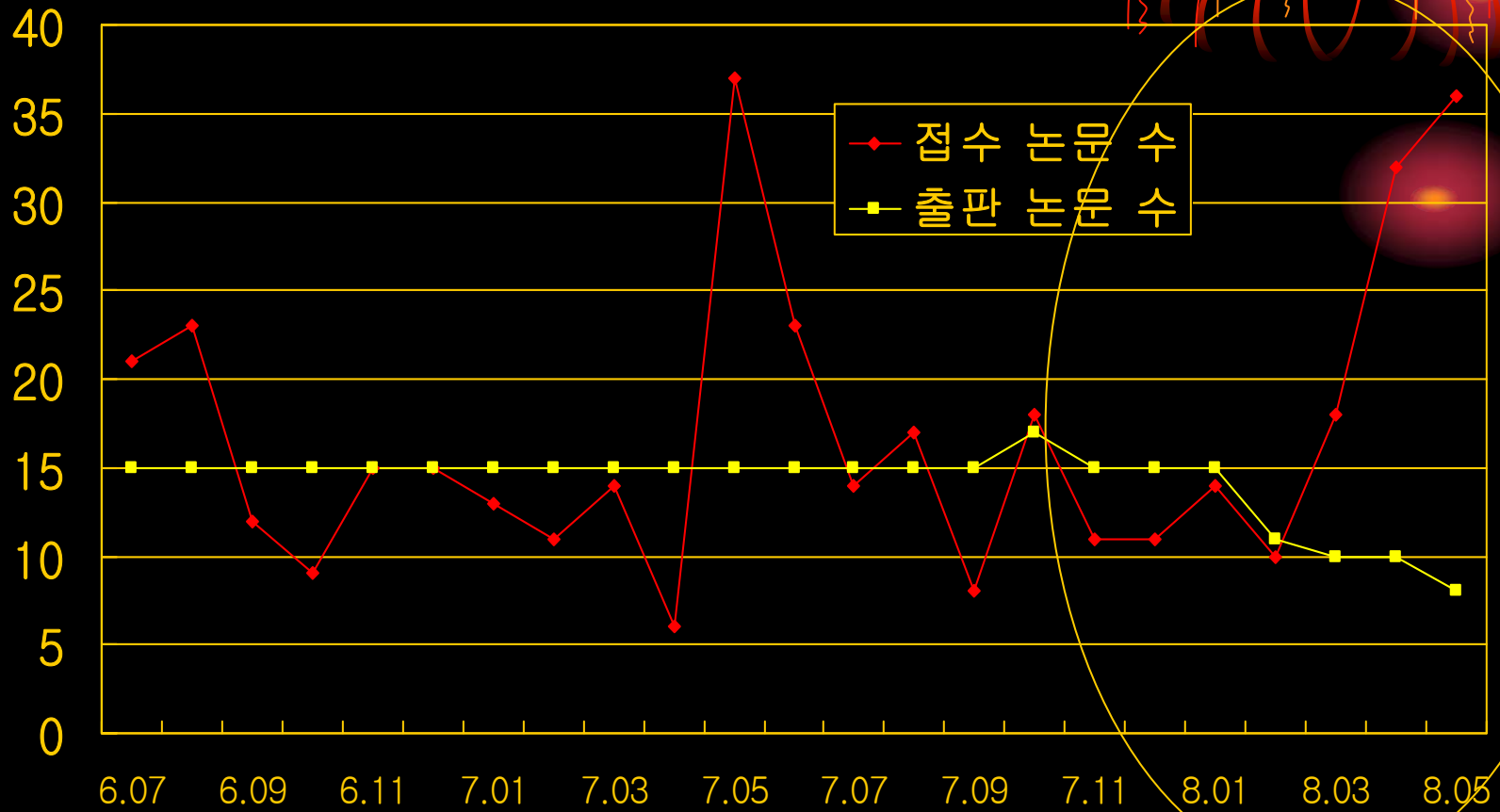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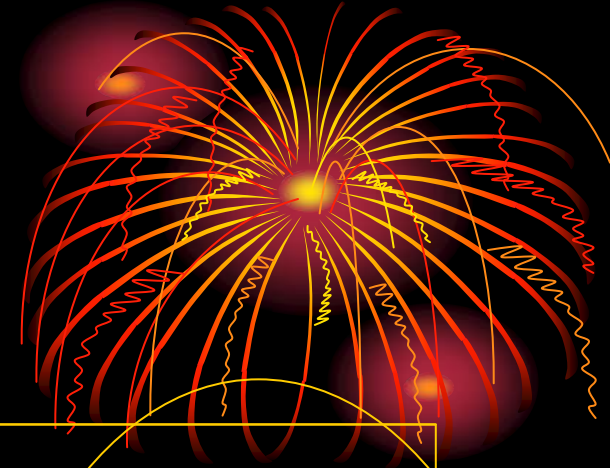
10편 이하도 출간

학술지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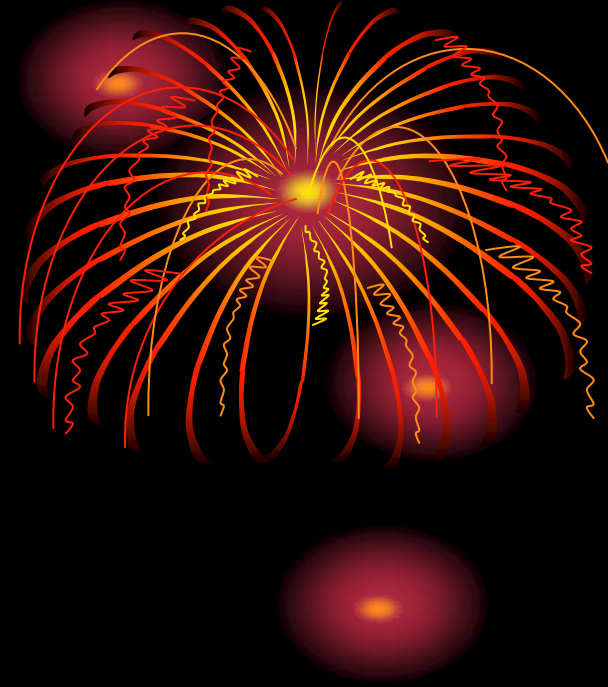


- Online 투고 / 심사 : 2008년 3월

학술지 투고와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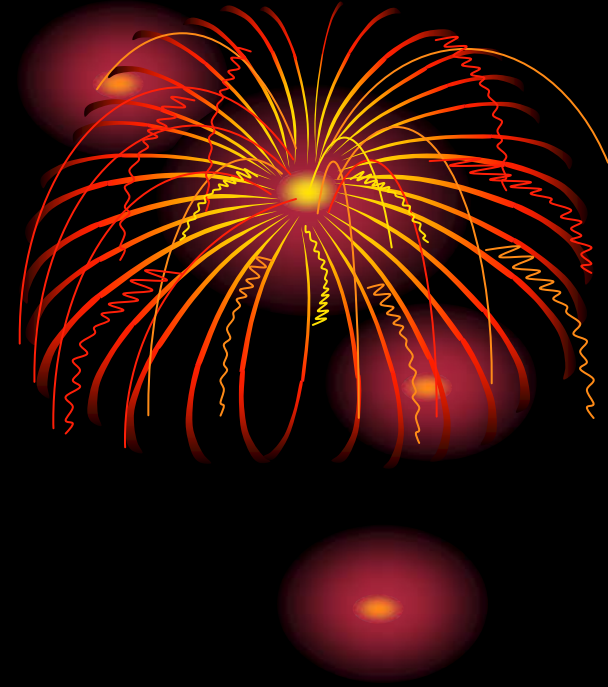


학술지, 잃은 것



- 우리 말 학술지
 - 투고가 어렵다
 - 읽히지 않는다
- B급 논문!
- 임기, 업무인계와 부위원장 제도

학술지, 속제



- 독자와 투고자 확대
 - 한국의 학술지?
 - 신경외과 학술지?
 - 분과 학회지와 공생?
- 변화하는 환경
- 우리 말 포기해야만 하나?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October 2002

Vol. 32, No. 4



창간 30주년 기념호
30th Anniversary

감사합니다!



좋은 논문을

우리 학술지에 투고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